

SNK, 'THE KING OF FIGHTERS '98 ULTIMATE MATCH Online' 업데이트

-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사랑받는 KOF '98 IP기반으로 운영중인 게임에 추가 캐릭터 등장시켜
- 中, 日 현지에서는 구글/앱스토어 무료 다운로드 순위 TOP3 기록해



SNK가 중국에 본사를 둔 아워팜(Ourpalm CO. LTD, 대표이사 류혜성)과 인기 격투 게임인 '더 킹 오브 파이터즈'의 IP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아워팜이 개발한 스마트폰 전용 액션 게임 'THE KING OF FIGHTERS '98 ULTIMATE MATCH Online' (이하 KOF '98 UMOL) 상에 SNK가 보유한 캐릭터를 새로 업데이트하는 내용이다.

KOF '98 UMOL은 지난 1990년대부터 30년 동안 최고의 사랑을 받아 오고 있는 SNK의 대표 대전격투 게임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아워팜 측은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 대전격투 게임의 캐릭터와 세계관을 충실히 재현하고, 추억의 사운드와 필살기, 캐릭터 보이스로 그 당시의 흥분이 손바닥 위에서 되살아 나는데 집중했다.

아케이드 게임 시대를 모르는 유저들도 신선한 감각으로 즐길 수 있게 만든 KOF '98 UMOL 본격 격투 게임으로써 화제를 모으며 일본에서는 Google Play 무료 게임 랭킹 3위, App Store에서는 무료 게임 랭킹 2위에 오르기도 했다. 전세계 누계 다운로드 수는 최근 7천 만을 돌파했다.

이번에 새롭게 등장하는 캐릭터는 2대 Mr.가라데 MIA이다. 과거 부친과 같은 텐구 가면을 착용한 것이 특징인 2대 Mr.가라데 MIA는 오랜 세월 동안 단련과 경험을 통해 더욱 깊어진 기술을 구사하는 가라데 고수로 등장한다.



SNK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모바일 게임상으로 즐기기 용이해 전 세계 이용자들로부터 당사의 기업가치를 제고 시키는데 효과적이다’며 “앞으로도 해외 유수의 게임사들과 꾸준한 계약으로 SNK의 IP를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끝>

<자료 문의>

SNK인터랙티브 홍보담당 전성국 대리 (010-5477-0979 / skchun@snkcorp.co.kr)

SNK인터랙티브 홍보담당 이은수 사원 (010-4491-7537 / eslee@snkcorp.co.kr)

<SNK 인터랙티브 소개>

SNK는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둔 게임회사로 일찍이 전 세계에 수많은 게임을 제공하여 세계적으로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국내에서는 올 상반기 증시에서 화제를 모은 공모기업 중 하나로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아랑전설’ ‘메탈슬러그’ ‘사무라이 스피리츠(사무라이 쇼다운)’ 등 1990년대를 풍미한 인기 게임의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흥행한 IP들 외에도 콘솔과 모바일 게임을 지속해서 개발 및 판매하며 성장 동력으로 앞세우고 있으며, 신규 IP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